

로맨틱服飾樣式研究

- 21世紀前後女性패션을中心으로 -

朴信英* · 曹圭和

梨花女子大學校 衣類織物學科 碩士科程*

梨花女子大學校 衣類織物學科 教授

A Study on the Romantic Costume Style

- Focus on Women's Fashion before and after the 21th century -

Park, Shin-Young* · Cho, Kyu-Hwa

Master's cours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mantic costume style which has become a big trend before and after the 21th century. For this purpose, I examined the development plans and characteristics of women's costume in France in the Romantic period from the 1820s to the 1850s and analyze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romantic costume style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romantic style in the 19th century were defined by the feminine and elegant beauty, exoticism, and sensuality. Since the 1990s, the characteristics are classified into Feminine & Elegant Style, Ethnic & Fusion Style, and Sensual Style.

- Feminine & Elegant Style is characterized by delicate, splendid lace and frill decorations that have become more ornamental and technical since the 1990s. They create greater romance and express gentler and more elegant femininity away from the artificial silhouette.

- Ethnic & Fusion Style use more diverse ethnic patterns, colors, accessories, and details since the 1990s and shows more varieties and creativity in convergence with modern fashion.

- Sensual Style exposes the physical curve of female body. In the 19th century, cuffs and collars were exaggerated and shoulders were exposed for sensuality. After the 1990s, however, see-through materials have been used to show the beauty of natural physical curves or corsets have been worn as the outerwear.

Studying romantic costume style, which arose as a concept of postmodernism, the cultural ideology that exists as a breakthrough of our time, is signified by the understanding of the latest cultural phenomenon and fashion trends.

Key Words : 로맨틱 (romantic), 여성적인(feminine), 우아한(elegant), 이국적인(exotic), 관능적인(Sensual)

I. 서론

21세기 전후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과 기계화에 지친 사람들은 변해가는 세상에 대한 반성과 함께 과거의 여유를 되찾고자 했다. 이로 인해 21세기 전후에는 복고 현상이 나타나 음악, 영화, 광고 등 문화 각 분야에서 복고풍이 재현되고 있다.

특히 복식은 인간 생활의 반영으로 그 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종교 등이 반영되어 인간의 내적·외적 미의식 세계가 조형적으로 전개된다. 그러므로 21세기 전후 패션 트렌드로 ‘복고풍(retro)’이 중요 배경으로 등장했다. 이는 과거의 것에 대한 향수에 따라 시대를 초월한 다양한 스타일이 재현되어 나타난 것으로 과거의 것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현대 패션 트렌드를 반영하여 새로운 형태를 창조해 나가기도 한다.

이러한 복고풍 패션의 큰 흐름으로 최근 로맨틱 복식 양식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2000/1 F/W에서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2001 S/S에서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2001/2 F/W에서 디앤지(D & G), 안나 몰리나리(Anna Molinari), 크리스티앙 라크루아(Christian Lacroix) 등과 더불어 2002 S/S에서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2003 S/S에서 샤넬(Chanel), 2004 S/S에서 엠마누엘 움가로(Emanuel Ungaro), 2005 S/S에서 블루마린(Blumarine), 2006 S/S에서 발렌티노(Valentino) 등 수많은 해외 컬렉션에서 로맨틱(Romantic)이라는 주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로맨틱 복식 양식이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자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로맨틱 복식 양식은 과거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처럼 하나의 트렌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트렌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대 패션에서

하나의 큰 흐름으로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로맨틱 복식 양식에 관한 선행 연구는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에 관한 연구¹⁾와 춘희의 문학작품²⁾이나 오페라 연구³⁾ 등이 있지만 21세기를 전후한 로맨틱 복식 양식에 초점을 둔 논문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00년대(2006년)까지 여성 패션에 나타난 로맨틱 복식 양식의 다양한 디자인 사례를 들어 로맨틱 복식 양식의 특성을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로브의 하이웨이스트라인이 제 위치로 돌아오는 1820년경부터 크리놀린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1850년경까지의 프랑스 낭만주의 복식 양식 및 미적 특성을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21세기 전후 로맨틱 복식 양식의 미적특성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선행 연구 자료와 일반 문헌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대 패션에 적용된 사례를 고찰하기 위해서 세계 5대 컬렉션을 선정하여 수록한 『Gap Collection s』 등의 패션잡지와 삼성디자인 넷의 시각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1세기 전후 여성패션의 로맨틱 복식 양식 사진을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컬렉션에 대한 디자이너의 생각이나 패션 전문가들의 설명에 있어 ‘로맨틱’, ‘로맨티시즘’ 등의 언어적 요소가 표현되는 경우로 제한하였고, 각각의 미적특성에 적합한 사진을 3매씩 총 9매를 선정하였다.

II. 21세기 전후(前後) 로맨틱 복식 양식의 사회·문화적 배경

본 장에서는 21세기 전후 로맨틱 복식 양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1990년부터 2000년대(2006년)까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세기말 현상과 글로벌리즘

(globalism), 에콜로지(ecology)와 웰빙(well-being) 경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세기말 현상과 글로벌리즘(Globalism)

1990년대는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세기말적 요소와 새로운 희망이 교차하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였다⁴⁾.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20세기를 정리하는 움직임과 새로운 세기에 일어날 변화에 대한 예고가 있었을 뿐더러 세기말이면 흔히 나타나는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혼재되어 사회 전반에 세기말 현상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과 퓨전(fusion)현상들을 수 있다.

20세기 전반 나타났던 보편적 기능주의로 대변되는 모더니즘(modernism)은 획일성, 단순성, 기능성을 강조한 실용주의 미학으로 이른바 ‘국제주의’라고 불리며 디자인 분야를 휩쓸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기존의 모더니즘과 상반되는 전혀 새로운 디자인 개념이 나타났다. 현대적이면서도 이질적인 요소, 즉 역사적, 토속적, 감성적, 상업적인 경향을 절충한 새로운 모더니즘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용어는 다니엘 벨(Daniel Bell)의 저서 『이념의 종말 (1960)』에서 최초로 사용된 용어로서 인간의 존중, 역사성의 회복, 다원주의, 대중주의, 단편화 현상, 보편내재성, 탈 중심화, 탈 기능주의, 계별 예술 간의 경계 붕괴 등을 주장하였다⁵⁾.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장르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엄격한 구분이 사라졌으며 결정론보다는 불확실성의 원리가 보다 중요한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전후한 사회는 주도적으로 문화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양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형식의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다. 점차 모든 분야에 걸쳐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장르간의 융합이 이루어져 문화 전반에 걸쳐 각 장르간의 혼성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퓨전 현상이 세기말 문화의 새로운 기호로 등장했다. 퓨전(fusion)이란 ‘섞다’, ‘조화’, ‘조합’, ‘융합’, ‘절충’을 뜻하는 것으로 서로 상충되는 2가지 이상의 요소들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교류가 활성화되다 보니 다양한 문화가 서로 융합하여 발생한 트렌드이다.

퓨전은 인터넷의 확산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해지면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해 지구 어느 곳이든 찾아가 수 있고,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등 시공간의 개념을 초월하게 되었다⁶⁾. 이렇듯 교통과 통신, 특히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은 정보를 전 세계에서 동시에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에서 일어난 일까지도 바로 영상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상세계까지 등장했다. 이 영상은 눈에 들어와 형과 색의 세계를 인간의 의식 속에 심어서 거기서 아주 확실적인 하나의 우연한 인식을 빚어냈다. 그러므로 현대는 아주 새로운 동시성(同時性)의 세계이다. 컴퓨터의 출현은 시간, 공간 개념을 바꾸었다. 우리들은 글로벌(global)한 세계만이 아니라 가상공간까지 볼 수 있으며, 동시적인 해프닝의 세계에 살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들어온 우리는 속도감과 시간, 공간 개념이 바뀌었고 대화의 개념도 바뀌게 되었다⁷⁾.

2. 에콜로지(Ecology)와 웰빙(Well-being)경향

21세기를 전후한 사회의 큰 관심 중에 하나로 환경문제를 들 수 있다. 지구환경보호 차원에서 비롯된 에콜로지(ecology)에 대한 관심은 환경 친화적이라는 의미에서 ‘자연으로의 회귀’ 현상이 나타났고, 인간정신의 근원적인 의미로서 인간성 회복을 위해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는 세기말적인 불안과 혼돈으로 정신적인 안식을 찾으려는 시도가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이 테크놀로지에 인간적인 감성을 가미하여 적절히 조화시키고자 하는 에콜로지 경향이 나타났다. 즉 에콜로지 경향은 환경적인 이슈가 생활 전반을 주도하는 가운데 하이 테크놀러지 사회에서 인간 내면의 정서를 환기시키고 정신을 정화하는 차원의 문화로 자리매김하였다⁸⁾.

에콜로지 경향과 함께 웰빙(well-being)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웰빙은 ‘복지·행복·안녕’을 뜻하는 말로 현대 사회의 병폐를 인식하고,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새로운 문화 또는 양식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경향으로 점차 스트레스와 바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이 각광을 받고 있다. 웰빙족은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의 방식으로 음식에 있어 자연식을 선호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요가, 명상, 스파, 헬스 등을 즐긴다. 웰빙족은 물질적 가치에만 매달리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III.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의 미적특성

낭만주의(浪漫主義, Romanticism)란 18세기 후반에서부터 약 100년간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전 유럽에 걸쳐 파급된 예술양식으로 처음 문학에서부터 시작되어 음악, 미술, 예술, 철학, 종교 등 일체의 정신영역에 걸쳐 전개되었던 사상⁹⁾이다. 복식사에서 이러한 사상이 나타난 낭만주의 시대를 구분하는 연대는 학자에 따라 다르다. 더글라스 러셀(Douglas A. Russell)¹⁰⁾은 나폴레옹 제국이 붕괴된 1815년부터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혁명이 일어난 1848년까지로 보고 있으며, 앤더슨 블랙(J. Anderson Black)과 매지 갈랜드(Madge Garland)¹¹⁾는 1815년부터 1850년으로 구분하였다. 이시야마 아키라(石山彰)¹²⁾는 근대복식을 5시대로 구분하면서 로맨틱 양식 시대를 1830년대에서 1850년으로 구분하였으며, 단노 가오루(丹野郁)¹³⁾는 정치사적인 구분으로 1830년에서 1848년까지의 루이 필립시대로 보고 있다. 한편 낭만의상전(浪漫衣裳展)에서 해설을 맡았던 스텔라 블럼(Stella Blum)¹⁴⁾은 풍성한 소매 실루엣의 유행기인 1835년부터 1895년까지를 로맨티시즘 복식시기로 잡고 있다. 블랑쉬 페인(Blanche Payne)¹⁵⁾은 복식사의 실루엣의 변화가 보이는 1820년에서 1850년까지를 낭만주의 복식 시대라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블랑쉬 페인이 지적한 1820년경부터 1850년까지를 낭만주의 시대라고 보았다. 낭만주

의 시대는 과격한 혁명에서 오는 공허감으로 민중들이 과거의 시대를 그리워하게 됨에 따라 다시 궁정문화의 향수를 불러일으켜 귀족풍의 복식이 부활하였다. 프랑스는 특히 로코코 풍을 택하였다¹⁶⁾.

본 장에서는 로브의 하이웨이스트라인이 제 위치로 돌아오는 1820년경부터 크리놀린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1850년경까지의 프랑스 여성복식을 '낭만주의 복식'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로코코 복식을 동경하여 나타난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의 미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여성적이고 우아한 복식미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복식은 여성적이고 우아한 복식미로 나타났고 이는 감성적, 외면적, 환상적, 여성적, 감각적 등으로 표출되는 미를 말한다.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은 과잉 장식적이고 부드럽고 감미로운 곡선미가 특징인 로코코 복식의 영향을 받아 고급스럽고 화려한 소재와 색상을 사용하고, 프릴, 레이스, 리본, 플라운스 등의 과잉장식과 다양한 액세서리로 여성적이고 우아한 멋을 나타냈다(그림1).

먼저 밝고 환상적인 색채와 우아하고 얇은 소재에서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주로 고운 청색이나 핑크색등의 밝고 신비한 색조가 많이 사용되었고, 특히 환상적인 흰색이 애호되었다. 색채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소재에 있어서도 얇은 머슬린이나 거즈, 레이스 직물, 실크, 드릴 등과 같은 우아하고 얇은 재료와 비단 등의 넓고 주름진 풍부한 드레스를 만들 수 있는 무거운 옷감도 사용되었다¹⁷⁾. 또한 화려한 의상을 만들기 위해 전체적으로 다이아몬드를 박은 금사로 만든 얇은 천을 소재로 사용하기도 했다¹⁸⁾.

여성적이고 우아한 복식미는 다양한 디테일과 트리밍 등의 과잉장식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이 시대의 장식 기법으로 사용된 셔링, 루시, 플리츠, 레이싱, 자수, 애플리케 등은 귀족적인 화려함과 함께 우아하고 환상적인 복식미를 나타냈다. 특히 폭넓은 벨형 스커트의 밑단을 견사로 수놓은 자수, 프릴, 러플, 플라운스, 끈, 리본 등으로 장식하여 로맨틱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그림2). 이밖에도 리

본을 선호하여 모자의 가장자리 장식이나 허리띠로 쓰였으며, 레이스를 복식에 디테일이나 트리밍으로 많이 사용함으로써 장식적인 효과를 주었다.

마지막으로 모자와 다양한 액세서리에서도 여성적이고 우아한 복식미가 강조되었다. 특히 여성들이 중요한 필수품으로 생각했던 모자는 레이스, 황금빛 실크 레이스, 주름 장식, 끈, 꽃, 깃털 등으로 장식되어 환상적이고 귀족적인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또한 폭이 넓은 아름다운 색의 리본을 달아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리기도 하고 꽃, 깃털 등을 풍부하게 장식함으로써 여성적인 분위기를 나타내었다. 모자뿐만 많은 다이아몬드, 진주, 루비, 에메랄드 등을 정교하게 세팅하여 만든 팔찌,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이 대단히 유행했다. 그 외에도 화려한 장식이 달린 부채와 리본이나 자수, 보석 등으로 장식한 신발, 그 외에도 여성스러운 장갑, 손수건, 핸드백 등 많은 장신구를 착용하여 귀족적이고 우아한 멋을 나타냈다.

2. 관능미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은 관능미로 표현되었다. 관능미란 여성의 아름다운 인체 곡선을 육감적으로 표현하는 특성으로, 복식에서는 여성의 인체 부위를 강조하여 형태적으로 과장시키거나 노출을 함으로써 표현되었다.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의 관능미는 상체를 코르셋으로 조이고 페티코트를 사용하여 스커트 폭을 넓혔던 로코코 복식을 동경하여 나타났다. 낭만주의 복식에서는 자연스러운 X자형 실루엣에서 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X자형 실루엣은 지고형 소매(gigot sleeve)를 달고 네크라인을 양옆으로 파서 목에서 어깨를 드러낸 반면 허리는 코르셋으로 조이고 스커트는 한층 부풀린 형태로, 가슴과 허리를 강조하고 목에서 어깨를 노출을 하여 관능미를 나타냈다(그림 3).

이 시기에는 가는 허리가 유행하여 허리를 가늘게 조이기 위한 코르셋이 다시 등장하였는데, 코르셋의 착용은 허리를 조여 줌과 동시에 가슴을 더욱 강조시켜 주었고 허리를 압박하여 가는 허리와 동근 엉덩이선, 풍만한 가슴의 굴곡을 만들어 냈다¹⁹⁾.

허리가 하이 웨이스트라인에서 제 위치로 돌아오면서 가는 허리를 나타내었지만 예전처럼 기구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또한 가는 허리에 반해 스커트는 벨 모양으로 더욱 부풀었다. 스커트의 부풀림을 강조하기 위해 엉덩이 버팀대나 패드로 된 롤을 스커트 아래 넣고 페티코트를 다시 입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스커트를 중형으로 만들기 위해 주름을 층층이 넣은 속치마를 착용하거나, 심을 넣은 패드를 스커트 밑에 입기도 했다. 심지어 스커트 밑에 8-10개의 페티코트를 착용하기도 하였으며, 스커트에는 개더나 깊은 박스 플리츠를 잡아 풍성한 실루엣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²⁰⁾. 또한 스커트의 길이가 점차 짧아져 보통 발목에서 발등까지 내려왔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장딴지까지 올라온 짧은 것들도 있어 매우 노골적인 차림새를 보여주었다²¹⁾.

마지막으로 버서 칼라(bertha collar), 페르린(pèlerine)²²⁾등을 단 드롭 숄더 라인(dropped shoulder line)의 상의(그림1, 그림4)는 자연히 목에서 어깨를 이루는 데콜테(décolletè)로 강조하여 낭만주의 복식 형태의 특성을 이루며 여성의 인체 곡선을 드러내어 관능미를 나타냈다.

3. 이국취미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의 이국취미는 영국풍, 그리스풍, 중국풍이 유행했던 로코코 복식의 이국취미가 이어져 나타났다. 이는 동방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대상으로 중국(시누아즈리), 인도, 페르시아 등에서 유입되거나 영감을 얻은 소재와 문양, 아이템을 사용하고 장신구 등이 사용되었다.

복식 소재로 사용된 인도의 머슬린은 드레스나 캡의 소재로 활용되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가장 자리에 레이스가 달린 주름장식과 넓은 리본 끈이 있는 캡 중에 인도산 머슬린으로 만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겼다. 또한 동방으로부터 들어온 크레이프 드 신(crepe de chine)²³⁾도 드레스나 슌에 사용되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소재뿐만 아니라 이국적인 문양에서도 이국취미가 잘 나타났다. 인도의 캐시미어 슌의 유행에 따라 전통 페이즈리(paisley)²⁴⁾ 문양이 대단히 유행하였다(그림5). 때로는 캐시미어 슌을 치맛단에 활용하여

페이즐리 문양이 들어간 드레스를 만들기도 했다.

머리장식에서도 이국취미가 잘 나타났다. 이 시대 여성복에서 터번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유행되었는데, 이는 19세기 초에 평범한 양상블과도 함께 착용되었으며 20세기까지 지속되었다²⁵⁾. 또한 이집트로부터 샤를르 10세에게 기린 선물이 올 때에 아 라 지라 프(à la giraffe)라고 불리는 머리형태가 많이 유행했고(그림6), 프랑스에 연합 군대가 주둔하면서 영국,

러시아 그리고 폴란드의 장신구들이 유행하였다²⁶⁾.

또한 중국풍도 성행하여 복식에서도 뿔은 머리 모양, 중국풍의 장식 등이 나타났다. 특히 가르마를 타서 매끈하게 빗어 넘기고 뒷머리는 높이 올려서 커다란 빗으로 고정시킨 중국풍 머리형태가 유행했고 1835년경에는 담황색의 안색과 스페인 여성 같은 검은 머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그림 1> 꽃, 레이스 등이 장식된 여성스럽고 우아한 드레스와 모자, 1820년대 『La Mode』



<그림 2> 자수, 프릴, 끈 등이 장식된 이브닝드레스 『西洋服飾版畫』



<그림 3> X자형 실루엣으로 여성의 인체를 강조한 데이 드레스, 1830년대 『Fashion』



<그림 4> 버서 칼라와 페르린이 달린 드레스, 1836년 『History of Fashion Plate』



<그림 5> 버서 칼라의 드레스와 페이즐리 문양의 솔, 1837년 『History of Fashion Plate』



<그림 6> à la giraffe 머리형태, 장갑, 부채 『History of Fashion Plate』

III. 21세기 전후(前後) 로맨틱 복식 양식의 미적특성

복식에서 협의(狹義)의 로맨틱 스타일(Romantic Style)의 한국어 표현인 ‘낭만주의 양식’과 ‘낭만적 양식’은 동의어인 것처럼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낭만주의 양식’은 18세기 말엽 문학, 예술, 철학, 종교 등에 걸쳐 전개된 사상인 낭만주의의 성격을 띤 양식을 뜻하는 반면 패션분야에서의 ‘낭만적 양식’은 19세기경부터 현대패션 전(前)까지의 양식을 의미하고 현대패션과 대립되는 복식을 가르킬 때 사용된다. 따라서 21세기 전후 패션은 낭만주의의 복고풍이 나타난 시대로서 이는 18세기 말엽부터 현대 전에도 나타났지만, 과거 낭만주의 복식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 아닌 낭만적인 분위기의 복식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므로 ‘로맨틱 복식 양식’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다.

1990년부터 2006년까지 나타난 로맨틱 복식 양식을 살펴본 결과,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의 이미지를 표현한 21세기 전후 로맨틱 복식 양식의 미적특성은 1. 여성적이고 우아한 스타일(Feminine & Elegant Style), 2. 관능적인 스타일(Sensual Style), 3. 민속적이고 혼합적인 스타일(Ethnic & Fusion Style)로 나타났다.

1. 여성적이고 우아한 스타일 (Feminine & Elegant Style)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의 여성적이고 우아한 복식미의 복고풍 이미지로 21세기 전후 여성 패션에서 여성적이고 우아한 스타일로 나타났다.

로맨틱 복식 양식의 여성적이고 우아한 스타일은 19세기 낭만주의 복식과 같이 섬세하고 화려한 꽃, 프릴, 레이스, 리본, 플라운스 등의 과잉 장식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과거 19세기 보다 합성섬유를 포함한 다양한 소재, 디테일의 사용과 과거의 인위적인 실루엣에서 벗어난 좀 더 부드러운 실루엣으로 우아한 여성미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21세기 전후 여성패션의 여성적이고 우아한 스타일은 프릴, 러플, 셔링 등의 주름장식이나 비즈,

자수 장식, 리본장식 등으로 환상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나타냈다. 2006 S/S 컬렉션에서 발렌티노가 선보인 드레스는 부드러운 소재로 여성의 곡선을 살려주었다. 그리고 곡선적인 프릴장식을 하여 로맨틱한 분위기를 잘 나타내주었고, 섬세한 여성미를 함께 표현해주었다(그림7).

또한 레이스, 실크, 시폰, 오간자 등의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여 로맨틱한 분위기를 표현했다. 최근 웰빙 경향으로 가볍고 얇은 소재가 유행하고 있고 이러한 가볍고 비치는 소재는 인체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흐르는 듯 한 율동을 만들어 전체적인 실루엣을 한층 로맨틱하고 여성스럽게 나타내준다. 그 중 레이스는 여성적이고 우아한 스타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재로서 칼라와 같은 의복의 부분을 이루거나, 네크라인, 소매, 스커트에 장식되어 표현하며 레이스의 문양은 다른 소재의 질감과 대비되는 효과를 창출하여 장식성을 높였다. 2003 S/S 샤넬 컬렉션에서 선보인 흰색 레이스 슈트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도 자주 사용한 흰색과 핑크색 레이스의 이미지로 나타났다. 레이스가 주는 로맨틱한 분위기와 여성적인 실루엣이 잘 어우러져 귀족적인 우아함을 느낄 수 있다(그림8).

또한 최근 컬렉션에서 크리스티앙 라크루아, 랄프로렌(Ralph Lauren), 안나 수이(Anna Sui), 존 갈리아노 등 많은 디자이너들이 곡선적이고 사실적인 꽃을 소재로 한 여성스럽고 우아한 디자인을 선보여서 낭만적인 스타일을 나타내었다. 곡선적이고 사실적인 꽃문양은 소재 전체에 균일하게 배열된 작은 모티프로 활용되기도 하며, 의상의 한 부분을 차지하여 포인트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때 문양과 바탕이 유사한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색상으로 부드러우며 우아한 느낌을 주는 것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2004년 S/S 컬렉션에서 엠마누엘 웅가로는 패셔너블한 색채와 꽃문양의 소재를 통해 여성스러움을 표현하였다. 다양한 색채의 시폰 소재에는 꽃문양이 프린트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환상적인 느낌을 주고 어깨에 커다란 코르사주(corsage)를 부착해서 여성적이고 우아한 느낌을 나타내었다(그림9).



<그림 7> 프릴 장식의 로맨틱한 드레스, Valentino, 2006 S/S 『Gap Collections』



<그림 8> 레이스로 만든 여성스러운 슈트, Chanel, 2003 S/S 『Gap Collections』



<그림 9> 꽃문양의 컬러플한 드레스와 코사지, Emanuel Ungaro, 2004 S/S 『Gap Collections』

2. 관능적인 스타일 (Sensual Style)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의 관능미 이미지로 21세기 전후 여성패션에서 관능적인 스타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체 부위의 과장이나 노출을 통해 나타났다. 21세기 전후 여성패션에 나타난 로맨틱 복식 양식의 관능적인 스타일은 등, 다리, 배꼽 등의 신체를 과감하게 드러내고 로맨틱한 장식을 하여 낭만적인 분위기의 관능미를 나타냈다. 또한 코르셋 등의 속옷을 겹옷의 일종으로 선택하거나 장식을 한 비치는 소재로 은근히 신체를 드러내고, 신축성 있는 소재 등을 신체에 밀착시켜 인체 곡선을 그대로 강조했다. 이러한 신체부위의 노출과 과장 등을 통해 여성적인 곡선미를 드러내고 프릴, 러플 등의 장식을 하여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로맨틱 복식 양식의 관능적인 스타일을 표현하는 아이템으로 코르셋이 많이 사용되었다. 1986년 비비안 웨스트우드드는 “지난 10년간 역삼각형 모양을 이루는 여성복의 어깨 패드와 타이트한 힙이 성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보다 아름다운 형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은 여성스러운 방법 내에서 강해지길 원한다.”²⁷⁾라고 지적했

고 또한 “일단 여성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코르셋을 착용해야 함을 느끼지 못한다. 실제로 코르셋이 비난받았을 때 몇몇의 여성들은 의식적으로 그것을 선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코르셋은 속옷이라기보다는 패셔너블한 겹옷으로써 공공연하게 착용²⁸⁾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비난 받았던 코르셋은 현대 패션에서 단지 언더웨어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겹옷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상품화되어 여성의 관능미를 드러낼 수 있는 패션의 아이템으로 사용되고 있다.

1995년 『Vogue』에서 크리스티앙 라크루아는 소매의 볼륨과 코르셋이 특징인 웨딩드레스를 선보였다. 목에서 어깨를 드러내고 코르셋을 겹옷화하여 허리를 강조한 드레스는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의 낭만적인 이미지를 표현해 관능적인 스타일을 나타냈다(그림10).

2006 S/S 컬렉션에서 엠마누엘 웅가로는 어깨를 드러내고 코르셋 변형 벨트로 허리를 강조한 로맨틱한 드레스를 선보였다. 이러한 코르셋을 벨트형태로 변형시킨 스타일은 허리를 강조해 주고, 과거 속옷의 기능만 하던 코르셋을 예술적인 시각으로 재조명

하여 변화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11).

관능적인 스타일은 시폰 등의 비치는 소재나 얇고 드레이프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인체의 곡선을 강조함으로써 나타났다. 2005 S/S 컬렉션에서 소니아 리키엘(Sonia Rykiel)이 선보인 드레스는 안에 비치는 시폰과 새틴의 소재를 사용하여 신체 곡선을 드러내 관능미를 나타냈고, 가슴부위와 밑단에 로맨틱한 프릴로 장식하여 로맨틱한 관능적인 스타일을 이루었다(그림12).

3. 민속적이고 혼합적인 스타일 (Ethnic & Fusion Style)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의 이국취미 이미지로 21세기 전후 로맨틱 복식 양식에서 민속적이고 혼합적인 스타일이 나타났다. 현실 사회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과 세계화가 가속화되어 동유럽, 아프리카 등 과거보다 더욱 다양한 민족들의 복식에서 영감을 얻은 이국적인 문양, 색채, 액세서리, 디테일 등을 사용해 민속적이고 혼합적인 스타일로 나타났다.

민속적이고 혼합적인 스타일로 낭만적인 이미지의 중국풍, 일본풍 등이 많이 나타났다.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이 임박해진 시점에서 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프라다(Prada)를 선두로 지금까지 많은 디자이너들이 로맨틱한 장식을 한 중국풍 의상을 많이 선보이고 있다. 2006 S/S 펜디(Fendi)컬렉션에서 선보인 의상은 흰색 옷감에 빨간색, 푸른색, 노랑색 등의 비즈로 용문양을 장식하여 중국적인 분위기를 나타냈고 곡선적인 소매와 스커트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해주었다(그림13).

일찍이 서양 패션에 도입되었던 일본풍 패션은 21세기 전후 패션에서 다양한 장식적인 요소와 함께 로맨틱 복식 양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모노를 변형하여 언밸런스하게 여민 실루엣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1997 S/S 컬렉션에서 발렌티노가 선보인 기모노풍의 상의와 스커트는 사실적이고 곡선적인 꽃문양 프린트와 코르사주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해 주었다(그림14).

이밖에도 아프리카 문양이나 액세서리 등에서 영감을 얻은 스타일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아프리카



〈그림 10〉 소매의 볼륨과 코르셋이 특징인 1995년작 웨딩 드레스, Christian Lacroix 『Vogue 2006/11 제124호』



〈그림 11〉 코르셋 변형 벨트로 허리를 강조한 드레스, Emanuel Ungaro, 2006 S/S 『Gap Collections』



〈그림 12〉 인체의 곡선을 잘 살린 로맨틱한 드레스, Sonia Rykiel, 2005 S/S 『Gap Collections』

풍은 ‘자연주의’를 대표하는 룩으로써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아프리카의 생명력을 표현하고, 오염된 환경에서 탈피하여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나타내어 21세기 전후 로맨틱 복식 양식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활한 초원, 정글 등의 아프리카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어 아프리카 정글의 커다란 잎사귀 패턴을 활용하기도 하고, 호피무늬와 얼룩말 무늬, 뱀피 무늬 등 같은 야생 동물들의 패턴을 활용하여 민속적이고 혼합적인 스타일을 표현했다. 2005 S/S 컬렉션에서 선보인 블루마린 드레스는 호피 무늬로 의상에 아프리카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아프리카 부족을 연상시키는 여러 겹의 비즈, 구슬 등의 목걸이를 겹쳐 장식하여 로맨틱한 아프리카풍을 표현했다(그림15).

이 밖에도 로맨틱 복식 양식의 유행에 맞춰 헤어 스타일과 액세서리는 점차 확대되고 과장되었다. 로맨틱한 꽃장식의 동양풍 업스타일과 일본풍의 검은 색 울린 머리 가발 등은 의상에 오리엔탈적인 신비롭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V. 결론

이상과 같이 21세기 전후 로맨틱 복식 양식의 미적특성을 살펴본 결과,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의 여성적이고 우아한 복식미의 복고풍 이미지로 21세기 전후 여성 패션에서 여성적이고 우아한 스타일로 나타났다. 로맨틱 복식 양식의 여성적이고 우아한 스타일은 19세기 낭만주의 복식과 같이 섬세하고 화려한 꽃, 프릴, 레이스, 리본, 플라운스 등의 과잉 장식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과거 19세기 보다 합성섬유를 포함한 다양한 소재, 디테일의 사용과 과거의 인위적인 실루엣에서 벗어난 좀 더 부드러운 실루엣으로 우아한 여성미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의 관능미 이미지로 21세기 전후 여성패션에서 관능적인 스타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체 부위의 과장이나 노출을 통해 나타났다. 21세기 전후 여성패션에 나타난 로맨틱 복식 양식의 관능적인 스타일은 등, 다리, 배꼽 등의 신체를 과감하게 드러내고 로맨틱한 장식을 하여 낭만적인 분위기의 관능미를 나타냈다. 또한 코르셋



<그림 13> 보디스에 용문양의 비즈로 장식한 상의와 스커트, Fendi, 2006 S/S 『Gap Collections』



<그림 14> 기모노풍의 로맨틱한 상의와 스커트, Valentino, 1997 S/S 『Gap Collections』



<그림 15> 호피무늬로 포인트를 준 로맨틱한 아프리카풍 드레스, Blumarine, 2005 S/S 『Gap Collections』

<표 1> 21세기 전후(前後) 로맨틱 복식 양식의 미적특성

내용 형식	여성적이고 우아한 스타일 (Feminine & Elegant Style)	관능적인 스타일 (Sensual Style)	민속적이고 혼합적인 스타일 (Ethnic & Fusion Style)
미적특성	과잉장식적인 요소로 환상적이고 귀족적인 분위기 표현	여성의 아름다운 인체 곡선을 드러냄	다양한 민족의 복식 양식을 재해석하여 이국적이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로 표현
표현기법	러플, 리본, 레이스, 플라운스 등의 장식적인 디테일과 코르사주, 비즈 등의 장식	여성의 인체의 곡선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울동적인 프릴, 플라운스, 비즈 등의 장식	민속적인 상징물, 액세서리, 디테일을 활용
소재 및 문양	여러 종류의 레이스, 시폰, 실크, 오간자 등의 소재, 사실적이고 곡선적인 꽃문양	시폰 등의 비치는 소재, 드레이프성이 있는 소재	동양, 아프리카 등의 전통문양과 다양한 이국적인 분위기의 소재
색채	흰색과 파스텔 톤의 환상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의 색채, 화려한 색채, 유사색상의 배합	화려한 색채, 무채색의 어두운 색채, 소재의 투명성 활용	각 나라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줄 수 있는 다양한 색채
19세기 낭만주의 복식과 비교	함성섬유를 포함한 다양한 소재와 디테일, 과거의 인위적인 실루엣에서 벗어난 부드러운 실루엣	등, 배꼽, 다리 등의 신체노출, 코르셋 등의 속옷의 겹짓화, 시스루, 드레이프성 소재로 인체 곡선 드러냄	동유럽, 아프리카 등 19세기 보다 더욱 다양한 나라에서 영감을 얻은 문양, 소재, 액세서리의 활용
			
19세기 미적특성	여성적이고 우아한 복식미	관능미	이국취미
			

등의 속옷을 겉옷의 일종으로 선택하거나 장식을 한 비치는 소재로 은근히 신체를 드러내고, 신축성 있는 소재 등을 신체에 밀착시켜 인체 곡선을 그대로 강조했다. 이러한 신체부위의 노출과 과장 등을 통해 여성적인 곡선미를 드러내고 프릴, 러플 등의 장식을 하여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셋째,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의 이국취미 이미지로 21세기 전후 로맨틱 복식 양식에서 민속적이고 혼합적인 스타일이 나타났다. 현실 사회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과 세계화가 가속화되어 동유럽, 아프리카 등 과거보다 더욱 다양한 민족들의 복식에서 영감을 얻은 이국적인 문양, 색채, 액세서리, 디테일 등을 사용해 민속적이고 혼합적인 스타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21세기 전후 패션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은 로맨틱 복식 양식은 19세기의 미적 특성이 현대 흐름 속에 융화되어 새로운 형식과 미를 창조해내고 있다. 즉 19세기 낭만주의 복식의 미적특성은 21세기 전후 로맨틱 복식 양식에서 독립적으로 표현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여성적이고 우아한 스타일(Feminine & Elegant Style), 민속적이고 혼합적인 스타일(Ethnic & Fusion Style), 관능적인 스타일(Sensual Style)로 나타난 21세기 전후 로맨틱 복식 양식을 특성, 색채, 소재 및 문양, 기법, 19세기 낭만주의 복식과의 비교에 따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참고문헌

- 1) François Boucher(1987),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 Harry N. Abrams, Inc.
- 윤점순(1982), *서구 낭만주의 복식에 대한 고찰*,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미옥(1990), *La Dame aux Camélias(춘희)에 표현된 복식과 미의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최봄시내(2002), *베르디 오페라 「La Traviata」 이미지의 의상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조규화·이희승(2004), *패션미학*, 서울 : 수학사, p.241.
- 5) 앞글, p.286
- 6) 앞글, p.246.
- 7) 앞글, p.427.
- 8) 앞글, p.243.
- 9) 조규화·이희승(2004), p.673.
- 10) Douglas A. Russell(1983), *Costume History and Style*, London : Cassel & Co, pp.327-345.
- 11) J. Anderson Black, Madge Garland(1965), *A History of Fashion*, London : Black Cat, pp.175-190.
- 12) 石山彰(1968), *服飾意匠*, 東京 : 光生館, p.194.
- 13) 丹野郁(1965), *西洋服飾發達史*, 東京 : 光生館, p.94.
- 14) Stella Blum(1980), *Evolution of Fashion 1835-1895*, Kyoto :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pp.13-16.
- 15) Blanche Payne(1965), *History of Costume*, New York : Harper & Row, pp.488-507.
- 16) 조규화·이희승(2004), p.186.
- 17) 이경아(2004), p.46.
- 18) Max von Boehn 저, 천민수 역(2000), *패션의 역사*, 서울 : 한길아트, p.244.
- 19) Marilyn J. Horn, Lois M. Gurel(1981), *The Second Skin*, Boston:Houghton Mifflin Company, p.189.
- 20) Marybelle S. Bigelow(1970), *Fashion in history - Apparel in the Western world*, Minneapolis:Burgess Publishing Company, p.205.
- 21) J. Anderson Black, Madge Garland(1965), p.184.
- 22) 페르린 (pèlerine) : 페르린은 ‘순례자’라는 의미로 순례자들이 팔꿈치 길이의 케이프를 착용한데서 유래함.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유행했던 여성이 착용한 케이프나 어깨 길이로 초기에는 앞이 길게 늘어진 케이프였으

며 그것을 앞에서 교차시켜 허리에 둘러 등에서 매기도 했다.

- 23) 크레이프 드 신 (crepe de chine) : 프랑스어로 '중국의 크레이프'를 의미. 무연의 경사에, 강연의 좌연 위사 두 올을 차례로 교차시켜 넣으면서 평직으로 직조한 것. 견 또는 합성 필라멘트 섬유로 직물로 섬세하다. 드레스, 블라우스 등에 사용된다.
- 24) 페이즐리(paisley) : 인도 캐시미어 지방의 캐시미어 산양모로 수직(手織)한 캐시미어 솔의 무늬. 곡옥(曲玉)모양의 무늬를 중심으로 작은 꽃이나 당초무늬를 배열하여 무늬를 구성한 것을 가리킨다.

25) Barbara B. Baines(1981), *Fashion Revivals from the Elizabethan Age to Present Day*, New York:Drama Book Publishers, p.167.

26) 앞글, p.249.

27) Caroline Evans, Minna Thornton(1989), *Women & Fashion*, London:Quartet Books, p.151

28) Valerie Steele(2003), *The Corset : A Cultural History*, New York:Yale University Press, p.166.

(2006년 8월 30일 접수, 2006년 12월 20일 채택)